

외국인관광객 느니 또 번지는 불법영업

자치경찰, 불법 유상운송·무자격 가이드 등 64건 적발 전년대비 감절… ‘중국 관광객 렌트카 이용 불가’ 악용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불법 관광영업도 명달아 기승을 부리며 적발 건수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31건)보다 106% 늘어난 규모다.

자치경찰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



자치경찰이 도내 주요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며 불법영업이 성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관광공사의 ‘2024 제주 방문 외국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90.1%가 개별여행이고 중국 관광객의 여행 방식은 자유여행 94.3%, 부분 패키지 3.2%, 완전 패키지 2.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무등록여행업은 ‘관광진흥법’ 위반 사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무자격 가이드에게는 ‘관광진흥법’ 위반상 과태료 부과 등이 적용된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 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내년에도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40대 외국인 선원 실종 해경, 함정 투입 수색 중

제주 해상에서 40대 외국인 선원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3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9시15분쯤 제주시 애월읍 애월항 북쪽 약 13km 해상에서 어선 A호(33t, 근해연승, 서귀포선적, 승선원 9명)에서 40대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호 선장은 밤 9시쯤 “선원을 선미(배의 뒷부분)로 보냈는데 보이지 않는다”며 제주어선안전조업국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조업국으로부터 해상추락 의심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즉시 경비함정을 현장에 급파하고 유관 기관과 인근 어선에 수색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경비함정 2척과 유관기관 선박 1척, 인근 선단선 6척 등을 동원해 집중 수색을 실시했으나 현재까지 실종 선원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이날 오전 기상 악화에 따라 대형함정을 투입해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파도 덮치는 이호포구 제주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3일, 제주시 이호포구에 높은 파도가 해안으로 밀려오고 있다. 강희만기자

“흔들린 민주주의 1년, 민주시민 교육 지킨다”

전교조 제주지부 3일 성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전교조 제주)는 3일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주의가 흔들렸던 1년을 다시 맞으며 교사의 정치기본권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지키고자 한다”고 했다.

전교조 제주는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언어이며 교실이 시대의 어둠을 통과하게 만드는 등불”이라면서 “그러나 여전히 학교 안에서는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교실의 숨을 죄어오는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세

상을 해석하고, 불의 앞에서 질문하고, 두려움 없이 사유하도록 돋기 위해 존재한다”며 “그 권리가 억압당한 교사는 민주주의의 파수꾼이 아니라 침묵의 관리자로 전락하고 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면서 “전교조는 지금 국회 앞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찾기 위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제주 농업 온실가스 대부분 메탄·아산화질소

농기원, 34년간 주이 분석

비료·가축 분뇨 주요 요인
“감축 기술 개발·보급 필요”



벼를 재배하는 하는 지구. 도 농업기술원 제공

제주 농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는 메탄(CH4)과 아산화질소(N2O)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3일 이런 내용으로 제주 농업 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배출·흡수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이번에 ‘농업 부문 온실가스 통계 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1990년부터 2023년 까지 34년간의 장기 변동 추세를 살폈다. 이 과정에 기후 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의 2006년 지침에 따라 비료 사용량, 가축 사육 두수 등의 자료를 토대로 배출량을 다시 계산했다. 농업 부문의 주요 배출 원은 재배(농경지 토양, 벼 재배 등)와 축산(가축 분뇨 처리 등) 분야로 나뉜다.

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제주 지역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 구조는 메탄 58%, 아산화질소 41%, 이산화탄소(CO2) 1%였다. 이 가운데 메탄 배출은 가축 장내 발효와 가축 분뇨 처리 영향으로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 부문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진선희기자

서귀포 야적장 화재 41시간만에 완진

내일 국과수-소방 합동조사

서귀포시 토평공업단지 내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41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압됐다.

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분쯤 서귀포시 토평동 한 에너지업체 야적장에서 발생한 불이 완전히 꺼졌다.

화재는 지난 1일 오후 9시27분쯤 토평동 공업단지 내의 야적장에서 시작됐으며 발생 41시간 38분만에 완전히 진압됐다.

야적장 내부에 폐목재가 다량으로 적재돼 있어 화재 규모가 커져 진압에 장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는 건물 4개동, 연면적 1082㎡까지 확산됐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은 화재 진압을 위해 지난 1일 오후 9시47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대원 154명과 장비 32대 등을 투입했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야적장에서는 지난해 7월 24일에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창고 내부에는 폐목재 600t가량이 적재돼 있었다. 감식 결과 화재 원인은 자연발화로 추정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동 조사를 별일 예정이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채권

-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대상
KOREA PRESTIGE BRAND AWARDS 2022